



타박고구마가 될 때까지

양 희 창 | 간디학교 교장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한 학생이 있다. 요즘처럼 취직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유망한 기업에 이미 자리를 맡아 두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생이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산골짜기까지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 왔다. 그리고는 심각한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뭘 하다니? 정해진 자리가 있잖아?”

한참이나 뜨을 들이고는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어요. 남들처럼 눈만 뜨면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 취직시험 준비... 죽어라 공부했죠. 그런데 정작 나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 하는지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마치고 수능 성적에 따라 아무 생각없이 이 대학교, 이 전공을 택했죠. 그리고 세상 살기 어렵다니까 앞만 보고 달려온 거예요. 선생님, 정말 내가 뭘 해야 하죠?”

그래도 이 학생은 행복한 고민을 한다고 그럴 것이다. 그러나 정말 걱정이다. 이제야 그런 고민을 하게 되다니..... 너무 늦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는 삶의 진지한 고민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이제는 치열한 생존경쟁의 현장에서 부딪

쳐야 할 때인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 그 친구 탓이 아니다. 우리 교육이 잘못된 것이다. 자신을 깨닫고 자아를 성숙시켜 나가야 할 청소년기에 진지한 물음을 던지지 못하도록 청소년기를 묶어 놓은 교육제도가 범인인 것이다. 모든 권리나 의무를 유보한 채 오직 공부만 하도록 강요당하는 청소년들은 정작 해야 할 진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저 기계처럼 살아왔던 것이다.

어떤 가치를 지니고 세상을 살 것인지, 내가 만나는 이웃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며 인생을 바쳐 신명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작업을 청소년기에 한번도 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청소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모두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 청소년기는 30세까지라고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에게 의존하여 살아가고 결혼하여서도 부모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살아가는 미숙아임을 뜻하는 것일 게다. 이제는 우리의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다면, 창의성이 떨어진다느니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대안학교로 불리는 우리 학교로 찾아온다.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대안교육이라는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시원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으며 내 얼굴을 뻘히 쳐다본다. 나도 그 분을 뻘히 쳐다보며 웃는다. 그리고는 영철이네 고구마 이야기를 해 드린다. 그게 대안교육이라고…….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영철이라는 이름을 지닌 분이 있으시다. 그 분은 학교 옆에 조그마한 밭을 갖고 계시는 데 지난해에는 고구마를 심으셨다. 그런데 이 고구마가 유명해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유명하냐면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영철이네 고구마는 정말 맛이 없다는 사실이다. 머리에 털 나고는 이렇게 맛없는 고구마는 처음 먹어 본다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니 맛도 없고 내 맛도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고구마다. 정말 맛이 없다고 소문이 짝 퍼진 관계로 얼마나 맛이 없으면 그러냐고 찾아오는 사람까지 생겼다. 맛없는 캐릭터로 이미 영철이네 고구마는 자리를 잡은 셈이다.

둘째로는 영철이네 고구마는 농사짓는 방법이 유명하다. 한 여름 잡초가 무성할 때 주인인 영철이네 조차도 자신이 심은 고구마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헤매었다. 이름하여 '위장 농법'이다. 유기농법이나 자연농법은 저리가라이다. 우리 동네 두더지 조차도 다른 밭의 고구마는 모두 다 맛을 보았건만 영철이네 고구마는 건드리지 못하였다. 그래서 생각보다 수확이 꽤 짭짤했다.

셋째로는 영철이네 고구마는 물고구마라는 사실이다. 물고구마야 흔하게 있지만 영철이네 고구마는 그게 아니다. 분명히 심을 때는 타박고구마를 심었는데 케고 보니 물고구마가 나오더라는 이야기다. 어떤 단단한 고구마를 심어도 역시 마찬가지다. 영철이네 밭에 들어오면 물이 철철 넘치는 고구마

로 둔갑한다는 놀라운 이야기다.

그게 대안교육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가우뚱하시는 분들에게 볼품없는 영철이네 고구마를 내민다. 그러면 조금 먹어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선생님, 맛이 괜찮은데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 완전 물고구마는 아닌데요." "맞습니다. 맛이 괜찮지요? 오래 두고 기다렸거든요. 대안교육이 그런 거랍니다. 스스로 맛을 낼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대안교육이랍니다. 물고구마가 타박고구마가 될 때까지 믿어 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 대안교육이지요."

우리 교육은 그야말로 속성 재배이다. 기다려 주지 않는다. 무슨 얼어죽을 고민이냐고 뉘달한다. 그런 고민이나 시행착오는 실패한 인생이나 겪는 것이니 너는 아무 생각 말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채근한다. 그런데 정작 왜 달려야 하는 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왔던 것이다.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하지도 못하고 그냥 달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진지성이 떨어지고 창의성이 결여될 수밖에. 경쟁력이랄 것도 없고 그저 밥이나 먹으면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게 된다. 배우면 배울수록 불행해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지는 교육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다.

맛없는 고구마, 몰투성이 고구마는 다 모여 보자. 방치되고 한 구석에 밀린 고구마는 다 이리 모여서 이렇게 살아도 좋은 건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자. 멀쩡하게 생겨 가지고 왜 그렇게 죽을상을 하고 있는지 모든 걸 털어놓아 보자.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결정해야 한다.

대학 졸업반이라고 모두들 취직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그 때 내가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 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야학에서 자원봉사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교사의 길을 걷게 된 것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가장 행복한 길인가를 그 때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때문이었다. 일등이 되려고 비등거리기보다는 나에게 가장 맞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한다. 비록 알아주지 않고 돈이 되지 않더라도 말이다.

진정한 경쟁력은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능력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관심과 애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니 비록 일등은 아닐지라도 평생을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거꾸로 살아갈 각오를 하는 것이다. 가치를 택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움켜쥐려고 하면 안 된다. 주먹 쥔 손으로 다른 것을 잡을 수는 없는 일이다. 놓아야만 다른 것을 쥌 수가 있다.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쟁력은 다른 데 있다. 이웃을 짓밟아야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노후가 진정한 경쟁력이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이웃으로 만들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세상을 다른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사람이 넘쳐 나건만 나는 오늘도 이런 소리를 듣는다. "사람이 없어요. 정말 믿고 쓸 사람이 없어요." 믿을 놈 하나

없는 세상에서 믿을 만한 놈이 되는 것은 어떨까?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이 있는 법이다. 정말 문제가 많은 세상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풀기 위해 할 일이 그렇게도 많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일류 대학을 못 나와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고? 그렇다면 간판보다는 능력이 인정되는 사회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인지. 단지 내가 일류 대학 출신이 아니기 때문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 보자. 그리고 생명을 걸고 뛰는 거다. 학력 철폐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다. 비판은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겁쟁이가 나 자신이며, 틀 속에 갇혀 살면서도 나오려 하지 않는 움츠려 든 모습이 나의 자화상이다. 누군가가 문제를 풀어 줄 때까지 나 자신은 가만있겠노라고 한다. 대안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학교 교육이 잘못 되었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스스로 잘못된 교육의 현장에서 부딪혀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들에 의해 대안교육은 시작되었다. 각 분야에서 대안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들의 신나는 행진을 기대해 본다. 물고구마들의 땀흘림은 타박고구마가 되는 과정이 아닌가? **양희창**

양희창

연세대 사학과와 충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간디학교 교장으로 대안교육 운동에 힘쓰고 있다.

